논어 19편 자장 10장 · 원문·풀이

子夏曰：「君子信而後勞其民，未信則以爲厲己也。信而後諫，未信則以爲謗己也。」

독음 · 자하왈 군자신이후로기민 미신즉이위려기야 신이후간 미신즉이위방기야

쉬운 풀이(요약) · 신뢰를 얻은 뒤에 일을 맡기고 간해야 한다. 믿음 없이 일을 시키면 괴롭힘으로, 충고하면 비방으로 받아들인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夏 여름 하 하 / 曰 가로 왈 / 君 임금 군

信 믿을 신 신 / 而 말이을 이 / 後 뒤 후 후 / 勞 일할 로 로

其 그 기 / 民 백성 민 민 / 未 아닐 미 미 / 則 곧 즉

以 써 이 이 / 爲 할 위 / 厲 갈 려 려 / 己 자기 기 기

也 어조사 야 / 諫 간할 간 간 / 謗 헐뜯을 방 방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